

# 국내 유학생의 영어-원어강의 (English as a Medium of Instruction) 수업경험

이용직\*, 여열\*\*

\*우석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우석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e-mail:fhlyongko@naver.com

##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s of English as a Medium of Instruction (EMI)

Yong-Jik Lee\*, Yue Li\*\*

\*Dept. of Education, Woosuk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Woosuk University

###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한 지방 사립대학교 대학원 유학생의 EMI 수업 경험에 대해 연구하였다. 혼합연구를 적용하여 EMI 수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EMI 수업에 대한 태도, 학습자의 자기 영어능력 향상에 대한 3가지 측면에서 학습자의 EMI 수업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데이터는 학기말 설문지(N=70)와 그룹인터뷰(N=9)를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들은 EMI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수자의 교수방법은 EMI 수업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유학생들은 EMI 수업을 통해 학술적인 영어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학생의 EMI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 1. 서론

## 2. 선행연구

글로벌화로 인해 세계 여러 고등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유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1][2]. 이러한 다양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수업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대학교들은 수업 방식을 조정하여 영어매개강의(English as a Medium of Instruction: EMI)를 개설하였다[3]. EMI 수업의 정의는 영어가 제 1언어가 아닌 나라에서 영어로 콘텐츠 과목을 강의하는 것이다[4]. 한국 교육부(2019)에 따르면 국내 대학원 유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국내 대학에 등록된 유학생은 총 16만 165명이다. 그 중에 중국인 유학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7만 1,067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학생들의 증가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지방 사립 대학교에 있는 대학원 유학생의 EMI 수업경험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혼합연구를 적용하여 유학생들의 EMI 수업 효율성에 대한 평가, EMI 수업에 대한 태도, EMI 수업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 영어능력에 대한 영향을 연구로 진행하였다.

### 2.1 EMI 수업의 효율성

EMI 수업의 효율성은 교수자의 언어 수준, 교수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정된다 [5][6][7]. Qiu & Fang(201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어민 교사는 다양한 교수 활동과 멀티모달리티를 활용하여 수업중 많은 상호작용을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에 비원어민 교수자들은 학습자의 문화·사회적 배경지식이 높아서 영어학습자의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장단점을 정리하여, Inbar-Lourie & Donitsa-Schmidt(2020)는 이상적 EMI 교수자는 영어가 유창한 콘텐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며, 현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여야 하며, 콘텐츠와 제 2언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2 EMI 수업에 대한 태도

Muthanna & Miao(2015)의 연구에 따르면, EMI 수업은 영어학습자의 글로벌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에 대하여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EMI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Reilly(2019)는 EMI 수업이 학습자에게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Yeh(2014)도 마찬가지로 EMI 수업을 통해 영어 능력과 학술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어학습자가 EMI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 2.3 EMI 수업을 통한 영어학습자의 영어 능력에 대한 영향

Coşgun & Hasırcı(2017)은 EMI 수업은 영어학습자의 읽기, 듣기를 비롯한 전체적인 영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영어학습자의 영어 수준에 따라 EMI 수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학습자의 영어 수준이 낮으면 EMI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영어 능력을 향상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8][9].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대학원 유학생을 대상으로 EMI 수업 효율성에 대한 평가, EMI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EMI 수업을 통한 학습자의 영어실력 변화에 대한 3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시하였다.

Q1: 국내 대학원 유학생들은 EMI 수업의 효율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Q2: 국내 대학원 유학생들의 EMI 수업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Q3: 국내 대학원 유학생들은 EMI 수업을 통해 본인의 영어 능력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에 있는 한 사립대학교에서 대학원 중국인 유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석사 1학기부터 박사 3학기까지의 모든 중국인 유학생들을 포함하고, 그 중에 3명의 연구 참여자는 입학하기 전 영국이나 러시아에 유학한 경험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EMI 수업을 실시한 3명의 교수자는 모두 미국이나 호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교수로 구성되었다.

### 3.2 연구척도 및 데이터 분석

본 연구는 학기말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한 혼합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10][11]에서 개발된 영어학습자의 태도, 만족도, 영어능력, EMI 수업의 효율성에 대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총 네 가지 영역,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구체적으로 1) 개인정보와 배경, 2) 학습자의 EMI 수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 3) 학습자의 EMI 수업에 대한 태도, 4) EMI 수업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 영어능력 변화로 구성되었다.

EMI 수업을 수강한 80명 대학원 유학생 중에 70명이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 설문조사를 끝난 후에 인터뷰에 지원으로 지원한 참여자 9명을 선정하여 3명씩 한 조로 40-50분 정도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데이터는 SPSS 26을 이용해서 기술통계 분석하였고, 인터뷰 데이터는 주제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설문지 결과

첫째, 유학생들은 EMI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학생들은 영어강의는 국제화 및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였고(4.311±.900), EMI 수업의 질(4.067±.837)과 다양성(3.956±.903)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가를 보였다. 유학생들은 EMI 수업을 통해 본인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유학생들은 EMI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유학생들은 EMI 수업을 통해 영어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4.220±.850).

셋째, 유학생들은 한국어 강의보다, 글로벌 교육시스템을 이해하거나(4.178±.936) 미래 본인의 진로를 계획하는데 (4.022±.988) 있어 영어강의가 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표 2] EMI 수업의 효율성, 태도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문항	M	SD
<b>영어강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b>		
1) 나는 영어강의 수강이 국제화 및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4.311	.900
2) 나는 현재 개설된 영어강의의 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4.067	.837
3) 나는 전공영역에 개설된 영어강의의 다양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956	.903
4) 나는 전공수업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영어강의 이수율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711	1.236
5) 영어강의의 개설이 나의 영어 능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022	1.118
<b>영어강의에 대한 태도</b>		
1) 나는 영어강의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	2.978	1.196
2) 나는 영어강의를 통해 영미권 언어와 문화에 더 익숙해지고 싶다.	3.911	.925
3) 영어강의를 통해 나의 영어실력을 높이고 싶다.	4.220	.850
4)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어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할 생각이 있다.	3.800	1.100
5) 한국어강의보다 나는 영어강의를 위해 더 많은 공부시간을 할애한다.	3.844	1.186
<b>영어강의 효과성</b>		
1) 영어강의를 수강하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3.711	1.160
2) 한국어강의보다 영어강의는 미국이나 한국 등의 글로벌 교육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178	.936
3) 영어강의는 나의 졸업 후 진로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022	.988
4) 영어강의는 한국어강의에 비해 전공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778	1.106
5) 영어강의는 전공과목에 대한 학습의욕과 흥미를 높여줄 것이다.	3.778	1.042
6) 영어강의 수강으로 영어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등의 영어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3.689	1.104

4.2 인터뷰 결과

첫째, 유학생들은 EMI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교수자의 수업역량과 수업방식이 효율적인 EMI 수업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었다.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다양한 영어자막을 가지고 있는 YOUTUBE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을 보면서 듣기 능력도 같이 향상시킬 수 있었다(대상자 2).

교수님들이 좋은 영어실력 덕분에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다. EMI 수업을 경험해본 다음, 나도 중국에 돌아갔을 때 EMI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대상자 9).

둘째, 유학생들은 EMI 수업에 대해 만족한다고 평가하였고, EMI 수업을 재수강 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었다...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EMI 수업을 더 많이 수강하고 싶다(대상자 8).

박사 입학하기 전 나의 전공은 중국문학이었다. 그래서 이전에 EMI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없다... 이번학기 EMI 수업을 통해 학술적 영어를 배우며 미래 진로 탐색에 필요한 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영어 원문을 통해 최신 연구동향을 찾아내서 연구를 진행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대상자 5).

셋째, 유학생들은 EMI 수업을 통해 자신의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EMI 수업을 통해 이전보다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생기며, 특히 논문을 영어로 쓰기 때문에 학술적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다음 학기부터 학위논문을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EMI 수업이 학술적인 영어 글쓰기에 관련하여 도움이 많이된다... 특히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개설된 영어 글쓰기 특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자 6).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들은 EMI 수업의 효율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중국인 유학생들은 EMI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며, 이후에 EMI 수업을 재수강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줬다.

셋째, 유학생들은 EMI 수업을 통해 본인의 영어실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학술적인 영어 글쓰기 부분이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효율적인 EMI 수업을 위한 제안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MI 수업을 개설하기 전에 영어학습자의 영어 수준과 실력을 확인하여 학습자의 영어실력에 따라 EMI 수업을 설계하고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EMI 수업에서 학습자의 모국어도 적당하게 사용하여 이중언어가 진행되는 수업이 효과적이다.

셋째, EMI 수업을 개설하고 촉진하기 위해 대학교수자에게 전문적인 교수자 연수 과정을 제공해야만 효율적인 EMI 수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Galloway, N., Numajiri, T., & Rees, N., "The 'internationalisation', or 'Englishisation', of higher education in East Asia", Higher Education, 80(3), pp. 395-414, 2020.  
 [2] Jon, J. E., Lee, J. J., & Byun, K., "The emergence of a

- regional hub: Comparing international student choices and experiences in South Korea", *Higher Education*, 67(5), pp. 691-710, 2014.
- [3] Hino, N, The significance of EMI for the learning of EIL in higher education: Four cases from Japan. In *English Medium Instruction in Higher Education in Asia-Pacific*(pp. 115-131). Springer, Cham, 2017.
- [4] Dearden, J., *English as a medium of instruction - A growing global phenomenon*. London, UK: British Council, 2014.
- [5] Inbar-Lourie, O., & Donitsa-Schmidt, S., "EMI lecturers in international universities: is A native/non-native English-speaking background relevant?",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23(3), pp. 301-313, 2020.
- [6] Qiu, X., & Fang, C., "Creating an effective English-Medium Instruction (EMI) classroom: Chinese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of native and nonnative English-speaking content teachers and their experi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pp. 1-15, 2019.
- [7] Yuan, R., Chen, Y., & Peng, J., "Understanding university teachers' beliefs and practice in using English as a medium of instruction",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25(1), pp. 1-16, 2020.
- [8] Belhiah, H., & Elhami, M., "English as a medium of instruction in the Gulf: When students and teachers speak", *Language Policy*, 14(1), pp. 3-23. 2015.
- [9] Coşgun, G., & Hasırcı, B., "The impact of English medium instruction (EMI) on students' language abi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9(2), pp. 11-20, 2017.
- [10] Byun, K., Chu, H., Kim, M., Park, I., Kim, S., & Jung, J., "English-medium teaching in Korean higher education: Policy debates and reality", *Higher Education*, 62, pp. 431 - 449, 2011.
- [11] Hwang, J. B., & Ahn, H. D., "The effects of college-level English-mediated instruction on students' acquisition of content knowledge and English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1(1), pp. 77-97, 2011.